영원히 타오르는 성화, 토론

1515655 컴퓨터과학부 임소희

현대에서 토론은 일상 생활 어느 곳이든 내재되어 있다. 학교 강의·TV 토론 프로그램·기업 회의· 의회 정책 가결의 장 등 토론을 통해 최종 의견을 도출 한다. 이러한 토론 이용은 오늘날 당연시 여겨지는 방식이지만, 100여년 전만 해도 토론은 우리나라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었다. 당시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아비규환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서구 열강들의 조선을 차지하려는 세력다툼이 존재하고, 내부에서는 이러한 외국세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이 정치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때 미국으로부터 토론 문화를 체득한 서재필이 귀국하여 ‘국민이 리더를 만든다’는 신념 아래, 국민 계몽을 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바로 ‘토론’이다.

토론은 근본적인 개혁을 달성하는데 초석의 역할을 하였다. 학생 몇 명으로 구성된 협성회에서의 토론을 시작으로, 독립협회에서의 토론회와 만민공동회는 우매한 국민들을 계몽하고 나아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전의 경학 토론은 성인들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는 학문 연구적인 성격이었다. 이에 반해 위에서 행하는 토론들은 논제에 관해 각 각 찬·반으로 입장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며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토론 과정에서 토론의 직접적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토론의 관중들도 의견을 나누면서 논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의 입장을 확립해나간다. 즉, 논제(이 때의 논제는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확립하고 이 논제의 해소를 바라게 되는데, 이 것의 기저에는 조선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정치의 ‘주체’라는 것이 깔려있었다.

또한 토론은 타인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데도 영향을 끼쳤다. 보수파와 개혁파, 양반과 평민 등 상호 대립하는 세력이 토론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토론회는 신분·계급·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었고, 모두 ‘평등’한 사람으로서 토론에 임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토론 전에 자신의 입장뿐 아니라 상대 측의 입장을 공부하며, 토론 중에도 상대 측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였다. 실제로 독립협회의 첫 토론회에서,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의견을 정책에 수렴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토론 참가자들과 토론회의 관중들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유연한 태도로 상호 존중을 한 것이다.

서재필을 필두로 한 토론의 불씨는 후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불길로 번져나갔다. 그 불길은 꺼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활활 불타오르는 성화이다. 우리는 이 성화를 꺼지지 않게 보존하며 더 크게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사회 이슈를 내포한 논제를 설정하고,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도 수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아 가치관을 확립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선, 이러한 토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토론의 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